

전통 조형정신의 구현체계의 분석 방법과 실현 방안에 관한 고찰

Notes on Methods for Realization and Analysis for Implementation of
Traditional Aesthetic Value

주저자 : 민경우(Min, Kyung - Woo)

명지대학교 산업디자인학부

1. 시작하며

2. 본 글

2-1 구현체계

2-1-1 분석

2-1-2 종합

3. 맺으며

참고문헌

그 사상의 단위들을 구성하는 방법, 원리, 규범, 절차, 형태 그리고 양식이며, 실질적 요소는 형식을 통하여 내용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도구, 매체, 재료 그리고 기술 등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는 상호연관 되어 있어 이중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완벽한 구현을 이룰 수 없다.

인간이 표현코자 하는 사상(思想)과 의미는 거의 언어로 이뤄지고 있다. 문장의 주성분에는 주어(생략가능), 목적어(목적), 서술어(방법), 보어(수단)가 있으며, 그것의 구성요소를 층위별로 규칙을 갖고 체계화시켜놓은 것이 문장이므로 위의 내용들을 언어와 비교 연구하여 디자인(조형)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전통조형의 체계에 관련된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또한 위의 방법으로 분석·정리된 결과를 갖고 전통조형정신을 시대에 적합하게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various research activities regarding Korean traditional aesthetics. However, those researches were mainly conducted individually, partially, and periodically, which resulted in unsystematic and incomprehensive work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organize all the precedent research works with more systematic and objective framework.

Generally speaking, all the human activities including aesthetic activity have ends, procedure and means. In other words, human being needs three key elements for realizing any thought and those three elements include contents, formal, and practical element. Element of contents is ultimate goal to accomplish as value, concept, and meaning of thought with their aims. Formal element includes methods, principles, norms, procedure, formality and style comprising of thought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al. Finally, practical element refers to specific means, tool, media, material and techniques to concretize the contents through form.

Almost all of thoughts and meaning which human being tries to express consist of language. Major elements in sentence include 'subject (omissible)', 'objects (aim)', 'predicate (formality)', 'complement (means)' and they are composed systematically and hierarchically with rules in sentence. The study compared human activity model with language structure and analyzed their implication with design (aesthetics), which made it possible to propose analytic frameworks for traditional aesthetics. In addition, the study also systematically organized the way to realize traditional aesthetic value in the present context based on the methods developed in this study.

(Keyword)

behavior, language, aim ; object, formality ; predicate, means ; complement

(要約)

최근 한국의 전통조형에 관련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뤄졌던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극히 개인적이고 부분적이며 산발적으로 이뤄졌기에,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체계화되지 못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체계적 틀로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조형행위 또한)는 목표와 절차와 수단을 갖고 있다.

즉 인간은 어떤 사상(事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내용적, 형식적, 그리고 실질적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내용적 요소는 사상의 가치, 관념, 의미, 그리고 목적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며, 형식적 요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1. 시작하며

인류가 지난 20세기에 성취한 과학 기술의 혁신은 세계를 단일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 있다. 서구에서 시작된 산업화는 이제 현대화를 지향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지역에 보편적인 정신적 가치와 생활양식을 유포시키며, 문화적 차이를 사라져가게 하고 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하여 미래의 사회는 문화의 동질화현상이 가속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국가나 지역적으로 독특했던 문화와 생활양식은 앞으로 다른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혼합되어 유사해질 것이며, 디자인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한 국가의 자연적 환경, 사회적 환경 등 지역의 독특한 삶의 자세를 형성시키는 지역적 요인들로 인하여 국가와 지역의 고유한 특질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전통적 문화의 독자성은 인간과 지역의 삶이 각기 유일하며, 나아가 서로 구별되는 고유한 문화는 삶에 흥미와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창조 의 원동력이 된다는 점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의 이데올로기적 구별에 의한 분쟁보다는, 경제적 이윤추구가 국제사회의 주요관심사가 되는 지금과 같은 국제적 상황에서, 국제 경쟁력강화의 직접적 수단이 되는 것은 결국 그 국가의 전통문화와 조형정신에 바탕을 둔 상품가치의 개발이며, 바로 이러한 점에서 문화의 표상¹⁾으로서의 디자인은 그러한 상품가치를 담아내는 구체적인 그릇이 된다. 미래의 국제사회에서 차별화된 한국 고유의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조형특질 중에서 조형의 형식적이고 표피적인 시각적 특질만으로는, 그것의 본질적인 요소인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고유한 문화성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그간 한국의 전통적 조형특질을 실제디자인에 도입한 경우, 그 방법이 대체적으로 전통형식의 양식화와 응용 정도이거나 단순 모방의 수준으로, 그것의 결과가 지극히 표피적이고 피상적이었기에 전통적 조형 특질 구현의 방법 중에서 매우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그간 '한국적 미' 또는 '한국적 조형' 등에 관한 순수미학이나 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역시 극히 개인적이고 부분적으로 다루졌기에, 그 내용이 단편적이고, 체계화되지 못했으며 객관성이 결여되어 한쪽으로 경도된 경향이 다분히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듯이 미래디자인에서는 전통문화나 정신에 바탕을 둔 조형작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디자인, 조형 분야는 한국 전통 조형에 관련된 체계와 그것의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연구 성과의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 전통조형에 관한 여러 가지 특질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의 틀을 제안하고, 그 구현방안을 제

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디자인이란 어떤 이미지나 개념을 구체적으로 실체화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방법으로, 우선 인간의 모든 사상을 구체화시키는 실제적인 기제나 요소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인간들이 성취하여 놓고 그 안에서 삶을 이루는 사회와 문화의 체계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아울러 인간이 표현코자 하는 의미는 거의 언어로 이뤄지고, 또한 그것의 구성요소를 층위별로 규칙을 갖고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언어이므로 위의 내용들을 언어와 비교 연구하였다. 더 나아가 디자인(조형)과의 상관관계도 살펴 구현체계의 틀을 만들므로써 과거에 이뤄졌던 선행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 종합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다음, 구현체계에 의해 분석된 한국 전통 조형의 특질을 어떻게 세계화시킬 수 있는지를 개념적으로 살펴보았다.

2. 본 글

2-1 구현체계

2-1-1 분석

사회란 일정한 공간적·시간적 한계 속에서 종교, 규범, 가치, 언어 등의 문화를 상호 공유하고 특정한 제도와 조직을 형성하여 질서를 유지하면서 공동생활을 하는 집단이다.

또한 문화란, 인간이 특정한 사회에서 생존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는 생활양식의 총체를 말한다. 따라서 사회와 문화의 관계를 볼 때, 개개인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며, 이들이 공동의 생활양식을 이루어 놓을 때 그것을 문화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사회와 문화는 개념적으로는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한계를 설정하기가 어렵다. 사회는 문화 없이 성립될 수 없고 또한 문화는 사회 속에서만 성장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와 사회는 사회생활이 가지고 있는 양면에 불과하고 사실상 동일한 대상을 접근하는 각기 다른 접근방식에 다름 아니다. 문화와 사회의 개념은 결코 완전히 분리할 수 없는 것이며 이를 다룸에 있어 단지 사회생활의 이 양 측면을 필요에 따라 적절한 의미규정을 갖춘 별개의 내용으로 분리해서 취급하는 것이다. 사회와 문화의 불가분적 관계를 중시하는 학자들이 사회문화적(sociocultural)이라는 용어를 흔히 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사회는 개별적인 인간들의 욕구와 행동의 집합에 의한 총체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회를 구성함과 아울러 사회변동의 주요기제를 이루는 하위체계를 살펴보면 이데올로기나 관념, 사회구조와 제도(규범), 그리고 기술경계로 구분함을 알 수 있다.

이데올로기는 특정집단의 선별적 사고작용에 의해 부각되는 조직적 사고체계로서, 관념적 영역을 언급하는 것으로 사용되기에 가치, 사상, 신념, 세계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이것은 일반적으로 특정의 신념들, 행위들 또는 문화적 제도들을 합리화·정당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사상체계를 의미한다.

구조란 실체를 꾸미는 부분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구조란 제도에 의해서 정의된 또는 조절된 관계 내에서 나타나는 인간들의 지속적인 태도, 즉 사회

1) 물건을 만드는 배경에는 그 나라나 민족의 전통적 정신과 문화가 있다. 고유한 정신과 문화가 없는 물건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물건을 국제사회에 수출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신과 문화를 수출하는 것이다. 한국의 제품을 사용하는 세계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한국 문화를 접하게 되는 것이다.

적으로 확립된 행동규범이나 유형을 일컫는다. 따라서 사회 구조란 안정된 집단요소들의 구성체이며 아울러 규범적인 기대체계이다.

기술경제에서 기술이란 사회에 유효한 기능적인 또는 물질적인 장비를 말하고, 경제는 일정한 사회에서 상품과 용역의 생산, 분배, 소비에 그 기술 장비와 지식을 적용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들을 의미한다. 기술이란 기회를, 경제는 그 기회를 사회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고 하겠다.²⁾

문화는 위의 사회를 구성하는 개별적 인간과 그 집합의 생활양식의 총체로서, 구조적으로 분류할 때, 문화는 다시, 가치, 규범 그리고 용구(물질)문화로 구분될 수 있다. 전술한 사회의 경우와 문화의 이러한 구분체계는, 모든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목표와 절차와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가치 문화는 생활의 의미와 목표를, 규범문화는 행동의 절차와 순서를, 그리고 용구문화는 생활의 수단을 공급해주는 물질적 해결을 가리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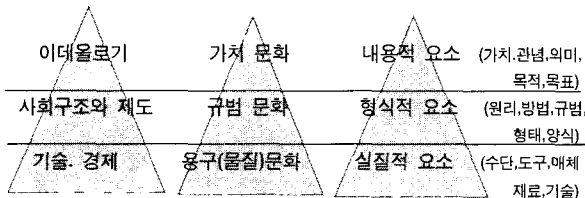
가치문화는 사회성원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현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람직하게 합리화하는데 필요한 관념과 관계된다. 즉 행동에 목표와 의미와 해석을 부여해주는 관념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규범문화는 인간행위의 준칙 또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문화로서, 사회적으로 시인된 것이라야 한다.

용구문화는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로 하는 일정한 방편적 수단과 그 수단을 생산하는 기술과 관련된 것으로서, 유용성이 기준이 되는 물질적인 것이다.³⁾

위의 사회와 문화의 체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즉 개인이건 사회건 간에, 인간이 어떤 사상(事象)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측면)가 필요한데, 이 세 가지 요소는 내용적 요소, 형식적 요소, 그리고 실질적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내용적 요소는 사상의 가치, 관념, 의미, 그리고 목적으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며, 형식적 요소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 사상의 단위들을 구성하는 방법, 원리, 규범, 형태 그리고 양식이며, 실질적 요소는 형식을 통하여 내용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 도구, 매체, 재료 그리고 기술 등을 가리킨다. 이 세 가지는 밀접하게 상호연관 되어 있어 이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되면 완벽한 구현을 이룰 수 없다. 이를 계층별로 구분하면 가치, 원리 그리고 수단의 층위로 나눌 수 있다.



사회의 체계 문화의 분류 사상의 구현 요소

사회인류학자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으로 언어를 사용함을 지적한다.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사

2) 데이비드 카플란 저, 최철 역 <인류학의 문화이론>, 174쪽.

3) 고영복 저 <문화사회학>, 25쪽.

물, 행위 또는 개념을 사회에서 약속한 바대로 객관화시켜 표현하고,⁴⁾ 인간 집단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사전달수단이 되어 사회생활을 성립시키기 때문이다. 아울러 언어를 통해 문화를 사회성원들에게 공유시키고, 또 그것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달시킨다.

인간의 모든 언어는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그 규칙에 따라 소리와 뜻이 결합되어 단어를 구성하고 이 단어를 일정한 체계에 따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든다.

여기에서 글을 바르게 만들어 쓰는 규칙을 문법이라고 하며,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언어의 형태소⁵⁾가 배합하여 단어를 형성하는 원리와 단어가 합하여 문장을 구성하는 원리를 문법이라고 한다. 여기에 형태소가 배합되어 단어를 형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를 형태론(morphology)이라고 하며, 문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원리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를 통사론(syntax)이라고 한다.⁷⁾

통사론에서, 문장은 몇 개의 구성요소(constituent)로 짜인 하나의 구성체로 정의된다. 구성요소 즉 성분에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것으로 주성분, 종속성분, 독립성분, 접속성분 등이 있다.⁸⁾

주성분은 문장이 성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하는 성분으로서 근간성분이라고도 한다. 주성분이 생략되면 완전한 문장이 성립되지 못하며, 이것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또한 종속성분에는 형용어와 부사어가 있다. 이 중에서 우선 주성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주어

문장의 주체가 되는 성분으로서 '무엇이(누구가) 무엇이냐(누구이다)', '무엇이(누구가) 어찌한다', '무엇이(누구가) 어떠한' 등이라고 하는 내용의 문장에서 '무엇이' 또는 '누구가'에 해당하는 말이다. 주어는 체언이나 용언의 명사형에 '이/가'가 결합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일상어에서 상황에 따라서 종종 주어가 생략되어도 의미가 전달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주어를 생략하고 서술어의 어미변화로 주어의 인칭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② 서술어

서술어는 주체의 행위, 상태, 성질에 관하여 서술하는 말이다. 문장에서 '어찌한다, 어떠한, 무엇이냐' 등에 해당하는 성분이다.

③ 목적어

4) 언어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면과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 쓰이는 양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언어학자 소쉬르(F.Saussure)는 전자를 랑그(langue)라 하고 후자를 빠롤(parole)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후자를 말한다.

5) 의미를 가지는 언어의 최소단위를 형태인(形態因)이라 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형태인이 합하여 하나의 의미를 가질 때 그것을 형태소(形態素:morpheme)라 한다.

6) 촘스키(N.Chomsky)는, 문법이란 한 조의 규칙의 집합체(a set of rules)라고 한다. 그냥 규칙이 아니고 한조의 규칙 또는 규칙의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연언어를 기술할 수 있는 문법규칙은 그러한 규칙 한 개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일정한 수효의 규칙이 있어서 이것들이 상호작용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7) 한상복의 2인 공저, <문화인류학 개론>, 331쪽.

8) 이주행 저, <한국어 문법의 이해>, 207쪽.

목적어는 서술어의 지향어로서 행위의 대상 또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이다. 문장에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에 해당하는 성분이다. 목적어는 체언이나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절에 '을/를'이 결합하여 이뤄진다.

④ 보어

보어는 도와주는 기능을 하는 문장성분으로서, 체언 또는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구나 절에 '이/가, (으)로, 와/과' 등이 결합하여 이뤄진다.

인간의 언어는, 다른 동물들의 그것이 매우 제한되고 단절적인 신호이거나 연속체에 불과한 폐쇄적인 체계임에 반하여, 제한된 수의 음과 단어를 자유자재로 다루어 무수히 많은 의미와 문장을 창조해내는 개방적인 체계이다.

문장은 인간의 사고나 개념 또는 어떤 사실을 일정한 규칙을 갖고 구성성분을 체계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앞에서 살핀 사회, 문화에서 인간의 사상이 그것의 목표와 절차 그리고 수단이라는 하위체계를 갖듯이 문장에서도 그것의 목표(목적), 절차(서술), 그리고 수단(보어)으로 체계화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간의 많은 선행연구에서 한국의 전통조형에 관련하여 꾸며놓은 문장을, 문장의 구성성분을 갖고 체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⁹⁾

조형이란 작가의 사상(思想)을 표현한 것이므로, 관계되는 용어의 상당부분이 표현에 관계되는 심리나 감각에 관련되는 정도(degree)나 성상(state)에 관련되는 것이 많다. 즉 '어떤'과 '어떻게'에 관한 많은 표현을 하고 있다. 따라서 주성분을 꾸며주는 종속성분에 관하여 살필 필요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① 형용어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에 대해 서술하는 말이다. 즉 이것은 문장에서 '어떤' 혹은 '무슨'에 해당하는 말이다. 어미는 '(으)ㄴ, -는'이 명사 앞에 놓이거나, '...(이)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형용어는 기능, 활용형태, 의미에 따라 분류되는데, 감각형용어, 심리형용어, 평가형용어, 비교형용어, 존재형용어, 지시형용어 등으로 나눈다. 이중에 조형작업에서 중요한 것은 감각형용어, 심리형용어, 평가형용어¹⁰⁾가 해당된다.

② 부사어는 주로 동사어나 형용어 앞에서 그것을 수식하는 말이다. 이것은 문장에서 '어찌(어떻게)'에 해당하는 말이다. 이 부사어는 기능에 따라 단어부사어와 문장부사어로 나뉘고, 의미에 따라 정도부사어, 성상부사어, 시간부사어, 장소부사어 등으로 나뉘는데, 조형작업에 관련되는 것은 정도부사어와 성상부사어¹¹⁾이다.

9) 우리는 여기에서 건축을 언어로 보는 관점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건축은 어떤 규칙과 구성방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언어가 음의 법칙과 문법에 지배되는 것과 같으며, 이러한 구성상의 지배력을 건축의 통사론으로 볼 수 있다.

10) 감각형용어: 감각적 의미를 나타내는 말이고(예;하얗다, 달다, 크다, 낫다, 가깝다 등)
심리형용어: 심리를 나타내는 말로(예;슬프다, 싫다, 분하다, 아프다, 답답하다 등)
평가형용어: 대상에 대한 평가를 뜻한다.(예;근면하다, 성실하다, 용감하다, 아름답다, 착하다 등)

11) 정도부사어: 어떤 동작, 상태, 성질 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말이고(예;가장, 아주, 꽤, 겨우, 한결, 조금 등),
성상부사어: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한정하는 말로서, 대부분 형

2-1-2 종합

앞에서 나열한 사회, 문화의 하위체계와 관련하여 언어에서 문장의 체계를 연관시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체계 구분 | 유사한 개념어 | 사회 | 문화 | 문장 |
|-------|----------------------------|--------------|---------|---------------------------------|
| 목표 | 내용, 의미, 관념 (for)what | 이데올로기, 관념 | 가치 | 목적; '무엇을' 위해 명사(형) |
| 절차 | 방법, 원리, 형식 (by)how | 사회구조, 제도(규범) | 규범 | 서술; 어찌+한다 부사+동사 |
| 수단 | 수단, 재료, 기술 (of, with)which | 기술 경제 | 용구 (물질) | 보충;어찌+어떤+무엇으로(무엇과) 부사+형용사+명사(형) |

위의 도표의 내용을, 디자인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분류하는 중요한 측면(속성 또는 고려해야 할 사항)세 가지¹²⁾와 연계시키면 결국 아래와 같다.

목표는 디자인에서 인간적 측면, 상징적 기능 또는 의미로 정리될 수 있으며, 디자인이 추구하는 가치나 관념으로 볼 수 있다. 절차는 디자인에서 미적측면, 미적기능 또는 형식으로 정리되며 디자인의 구성원리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수단은 디자인에서 기술적 측면, 실제적 기능 또는 그것을 실제화시키는 재료, 매체 또는 기술을 의미한다.

위와 같이 정리된 체계를 빌려 조형을 포함한 일반적인 인간 행위의 내용을 문장으로 분석·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예시할 수 있다.

용사에서 부사로 전성된 것이다.(예;넉넉히, 급히, 어렵듯이, 꾸준히, 열심히 등)

12) 디자인은 대단히 총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를 실제화된 제품과 연관시켜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고려사항)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플로스 (A.J.Pulos)는 기본적으로 한 제품은 기술적인 측면, 미적인 측면, 인간적인 측면의 세 가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그 작용에 의해 검토되어야 할 영역이 확대된다고 하였다. 로바하 (B.Lobach)는 제품의 기능을, 제품과 이용자 사이에 있는, 직접적이고 신체적, 조직적, 생리적 영향에 기인하는 모든 관계를 실제적 기능, 제품과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각적 인지의 심리학적인 측면으로서 미적인 기능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 관계되는 상징적 기능을 구분하고 있다. 한편, 디자인 프로세스상의 평가단계에서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인 의미분별차도법 (Semantic differential)에서 더블린(J.Doublin)은 제품에 있어서의 주요차원을 실용성, 사회적 의미, 심미성 (U.S.A:Utility, Social meaning, Aesthetics)등으로 구분하여 평가척도를 만들고 있다. 또한 파일 (J.F.Pile)은 그의 저서 『디자인』 (DESIGN, Purpose, Form and Meaning, 1979,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에서, 디자인을 목적, 형태 그리고 의미 (Purpose, Form and Meaning)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바, 앞의 세 사람의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접근 내용과 유사함을 볼 수 있다.

| 문장 성분 | 주성분 | 주성분 | 종속성분+종속성분+주성분 | 종속성분+주성분 |
|------------|-----------------|------------------|------------------------------|----------------------|
| 의미 | 주어 주체의 의미 | 목적어 목적의 의미 | 부사어+형용어+ 보충어 보충의 의미 | 부사어+서술어 서술의 의미 |
| 내용 | (주체)는; | '무엇을' 위해; | 어찌+어떤+무엇 으로(무엇과) | 어찌+...한다. |
| 예문 (일반) | 생략할 수 있음 | 식사를 하려고 | 식당으로 | 간다 |
| | | 즐거운 삶을 위해 | 아름다운+ 여인과 | 결혼한다. |
| 예문 (조형) | 생략할 수 있음 | 추상미를 표현코자 | 많은+선이 | 생략된다. |
| | | 생명감을 위해 | 종종+굵은+ 선으로 | 깊은+음각(을) 한다 |
| | | 단아함을 | 백토를이용한+상 감 기법으로 | 섬세하게+표현 한다. |

2-2. 구현방법

인간은 문화를 통해서 사회 환경에 적응하고, 그 적응과정에서 방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각기 다른 문화로의 다양성이 생겨나며, 다양한 문화는 독립적으로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속에서 상호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체로 통합된다.

그리고 상호 관련성을 지니는 문화특질¹³⁾들이 하나의 복합체로서의 문화유형을 이루고, 그것과 함께 일정지역의 주민이 장구한 세월동안에 서로 유대하며 생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 온 특징적인 생활양식이 문화인 것이다. 이러한 문화가 환경에 적응하여 오는 과정에서 일정지역의 일정한 사람들이 주변과 구분될 수 있는 문화적 특질들을 공동적으로 지니게 될 때 그것을 전통이라고 한다. 즉 전통은 지리적 공동체가 갖고 있는 공통의 문화적 정신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의 상징체계에서 의미작용의 전달작용은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게 되며, 또 그것이 전달되어 관습화(慣習化: conventionalized)되었을 때, 문화는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리하여 한 사회집단의 역사적 발전 속에서 그것의 정신적 바탕에 형성된 규범적 힘이 전승되면서 그 집단의 역사적 존재를 확고히 하게 되는데, 그 규범적 힘을 전통이라 일컫는 것이다.¹⁴⁾

전통은 전대(前代)의 어느 시점에서 고정된 정태적(靜態的)인 것이 아니라, 형적으로는 민족, 지역, 신앙, 풍토등과 종적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며 각기 다른 형식의 문화가 새롭게 형성, 소멸되면서 끊임없이 변천한다. 그러면서도 같은 지역의 공동체간에는 앞뒤 시기 간에 긴밀한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으며, 외형적인 변모는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13) 한 문화의 가장 작고, 가장 기본적인 요소를 문화특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내는 조상제도도 하나의 문화특질이고, 여기에 관련된 조상에 대한 태도, 제물, 제사 지내는 사람이 입는 옷도 모두 각기 하나의 문화특질이라고 할 수 있다.

14) 송민구 저, <한국의 옛 조형미>, 221쪽.

않는 추상적 정서 체계가 늘 존재하게 마련이다.¹⁵⁾ 이렇게 변하지 않는 추상적 정서 체계를 전통적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이란 인간과 인간의 집단, 즉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궁극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정신이란 어떤 개체가 그 개체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identity)을 갖도록 하는 가치로서 그 원형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 정신의 원형이 사라지거나 상실되면 그 개체는 소멸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전통적인 정신, 즉 가치가 없어진다면 그것의 문화가 소멸되는 것이고, 문화가 소멸된다 함은 그 개체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은 항상 그 원형은 깊게 유지하면서 주변의 환경변화에 따라 적절히 가변적으로 변용될 따름이다. 즉 전통적 정신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함께 공존하면서, 각 시기의 문화의 틀과 정서적 기반을 형성해 나간다. 디자인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지금 디자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을 살펴보면, 과거의 전통적인 정신문화가 깊게 축적되어 있고, 그러한 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적절히 변용시킨 나라들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섬세하고 정적이며 치밀한 조형성, 독일의 단순하며 질서정연한 조형성, 이탈리아의 창조적이며 유희적인 대범한 조형성, 북극의 자연에 바탕을 둔 부드럽고 유연한 조형성의 예로서, 이러한 것은 그들의 문화와 전통적 고유성이 과거 역사 속에서 두껍게 축적되어 표출되어 왔고, 그러한 정체성이 지금의 국제적인 보편적 가치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독자성 있는 디자인으로 세계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 조형정신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이것을 국제적인 흐름에 적합하도록 변용시켜야 하며, 바로 이것을 전통 조형 정신의 구체적인 구현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미래사회에서 국제화가 가속화되더라도, 시대적 적합성을 염두에 두면서 전통 조형정신의 정체성을 살리는 연속성을 확립하는 것이 곧 전통 조형정신의 구현방안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래(傳來)의 관행을 시대에 맞게 재조정하고 재적용시키며 재창조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며, 그것의 구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전통문화와 조형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고유한 전통 조형문화를 지니고 있으며 고유한 전통 조형문화야말로 다른 문화에 비해 우월하다는 자부(自負)도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사실이나, 전통적 조형문화의 지나친 강조는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그것의 재창조와 국제화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문화적 배타주

15) 전통이라는 말의 뜻을 풀이할 하지만, 그것은 '전하여'(傳), 현재와 '이어지는'(通)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저 전해져 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현재에 이어지는 것이어야만 한다. 현재로 이어지지 않는 전통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통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문화의 전통성 확립에 의한 세계화의 방안은 과거의 것만을 회고하는 과거지향적인 것보다는, 지금에 적합한 전통성을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를 넣고 때에 따라서 국수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수도 있다.¹⁶⁾

더군다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이 없이 피상적으로 자국의 조형문화의 특질에 대해 편향되어 과장되게 언급하는 것 또한 부적절하며 실증적인 효과가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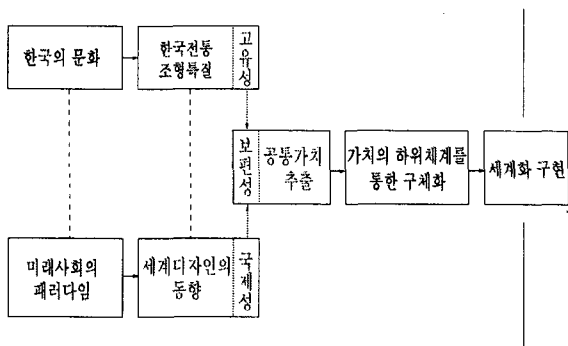
따라서 고유한 전통 조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적 접근이 필요한 바, 이것은 전통문화의 고유성에 관계되는 것으로 이러한 고유성은 앞의 구현체계에서 살펴보았듯이 언어체계를 빌려 그것의 목표(정신), 절차(원리, 방법), 그리고 수단(재료, 기술)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종합, 정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의 상황과 변동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와 미래의 구조와 디자인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시대정신과 변화의 패러다임을 파악, 새롭게 다가올 시대에 적합한 문화유형과 특질을 찾아내고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곧 국제적 가치와 그것이 실체화된 디자인을 통해 주변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 앞의 주변 환경에 관련된 국제적인 시대 가치와 체계적으로 정리된 전통 조형정신의 고유성을 함께 비교검토하면서, 미래의 사회구조에 적합한 보편성을 갖는 문화적 전통 조형정신을 발견하여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을 과정보로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즉,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는 전통 조형에서 발견되는 한국 전래의 정신 중에서 미래에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시대정신과 일치하는 가치를 발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구현체계에서 층위별로 가장 상위층에 있는 것이 정신적 가치에 해당되며, 어떤 개체가 정체성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선 미래의 패러다임과 일치하는 보편성있는 정신적 가치를 발굴한 후, 그것을 구현시킬 수 있는 하위체계 즉, 방법과 수단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원리와 기술, 그리고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할 때, 그 결과물은 우리의 전통적 특질을 가지면서 국제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

16)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낭만적인 발상 이전에, 괴테(J.W.von Goethe)가 이야기한 '가장 민족주의적인 문화는 모든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에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아만 한다.

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과 수단은 다양하며, 그것은 시대성을 내포하면서 항상 최선의 선택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조형성을 구현하는 방안에서 유념할 사항은, 목표로 삼았던 정신,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거의 방법과 수단에서, 그 시대의 생활규범과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야기된 결과는 구태여 모방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청자는 고려시대에 사용하였던 재료와 기술에서 최선의 작업을 했기에 세계적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대에는 사용할 수 있는 재료와 기법 등이 과거와 다르고 다양하므로, 구태여 그것을 모방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그것의 절차나 수단은 시대에 따라 항상 달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통은 항상 계승 하면서 시대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뜻한다.

3. 맺으며

모든 인간의 행위는 매우 복잡한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이것을 명증하게 분석하면 우리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절차와 형식을 밟으며, 구체적인 수단을 통하여 이룬다.

이러한 점은 인간의 사상이나 개념을 부호로 표현한 언어에서 문장의 경우, 그것의 주성분을 살펴본 주어, 목적어, 서술어 그리고 보충어로 나타내는데, 여기에서 주격어인 주체를 생략하면, 앞의 목적, 절차 그리고 수단이라는 체계의 층위와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렇듯이 인간은 그의 사상을 언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간 다소 모호하고 산발적으로 정리, 표현된 한국 전통 조형에 관련된 어휘들을 위의 체계에 따라 층위별로 정리함으로써 전통 조형의 구현체계와 그 방안을 분석적이고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방법은 구체적인 디자인 프로세스 상에서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의 최종단계에서, 종합안을 도출할 경우에도 앞의 체계는 매우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층위별 체계에 맞는 적절한 최선의 어휘를 선택하여 디자인의 개념과 목적에 적합한 조형원리와 구체적 수단을 다양하게 동원하여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확연한 사계절의 뚜렷한 변화를 갖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가지면서 무려 반만년의장구한 역사를 누려왔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 발전시키면서 살아왔기에 우리의 전통조형에 관련된 내용 역시 다양한 정신적 가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무한히 다양한 우리의 전통조형에 관련된 요소들을 시대적인 흐름에 맞게 적절히 변용시킬 때, 그것의 세계화 가능성은 대단히 크다고 하겠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시대에 맞는 정신적 가치를 발견한 후,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 인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1세기 동안을 돌이켜 볼 때, 근대화의 초기 과정에서 일체의 침탈에 의해 우리의 전통정신을 포함한 많은

부분들이 멸실되었다. 또한 해방 후 무분별한 서구문화의 도입과 아울러, 산업화 과정에서 우리 것에 대한 비하의식이 더욱 심화되어 그 정체성의 붕괴와 함께 혼돈의 시기를 지냈다. 다행히 최근 들어 우리 것에 대한 자의식이 본격화되어 디자인, 조형분야에서도 한국 전통조형에 관련된 관심과 연구가 새롭게 시작되려함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참으로 다행이라 하겠다.

그러나 앞의 글에서 말하였듯이, 세계의 흐름을 간과하고, 분석적인 고찰이 없이 우리 것에 대한 일방적이고 편향된 표현은 오히려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도 있기에, 보다 객관성을 갖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참고문헌

- 노길명 저, <문화인류학의 이해>, 일신사, 2001.
- 한상복·이문웅·김광역 저, <문화인류학 개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5.
- 유현정 저,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1998.
- 이주행 저, <한국어 문법의 이해>, 월인, 2001.
- 고영복 저, <문화사회학>, 사회문화연구소, 1997.
- 데이비드 카플란·로버트 매너스/최협 역, <인류학의 문화 이론>, 아남출판사, 1994.
- 송민구 저, <한국의 옛 조형의미>, 기문당, 1990.
- Chris Jenks, <Culture>, Routledge, 1993
- Ernest L.Schusky, T.Patrick Culbert <Introducing Culture>, Prentice - Hall, 1978
- Raymond Williams, <The sociology of culture>, Schocken Books, 1982
- Ruth F. Benedict, <Pattern of Culture>, Routledge, 1971